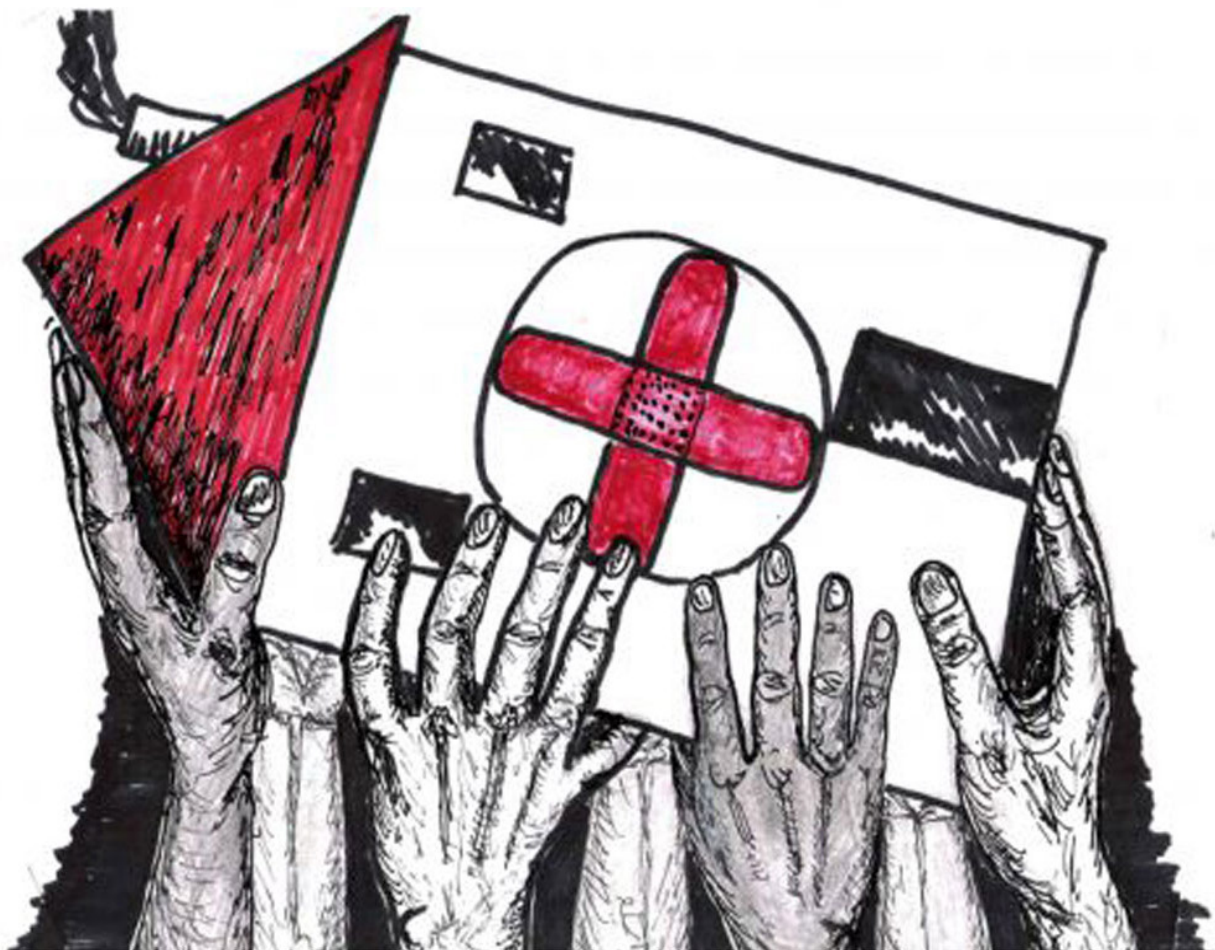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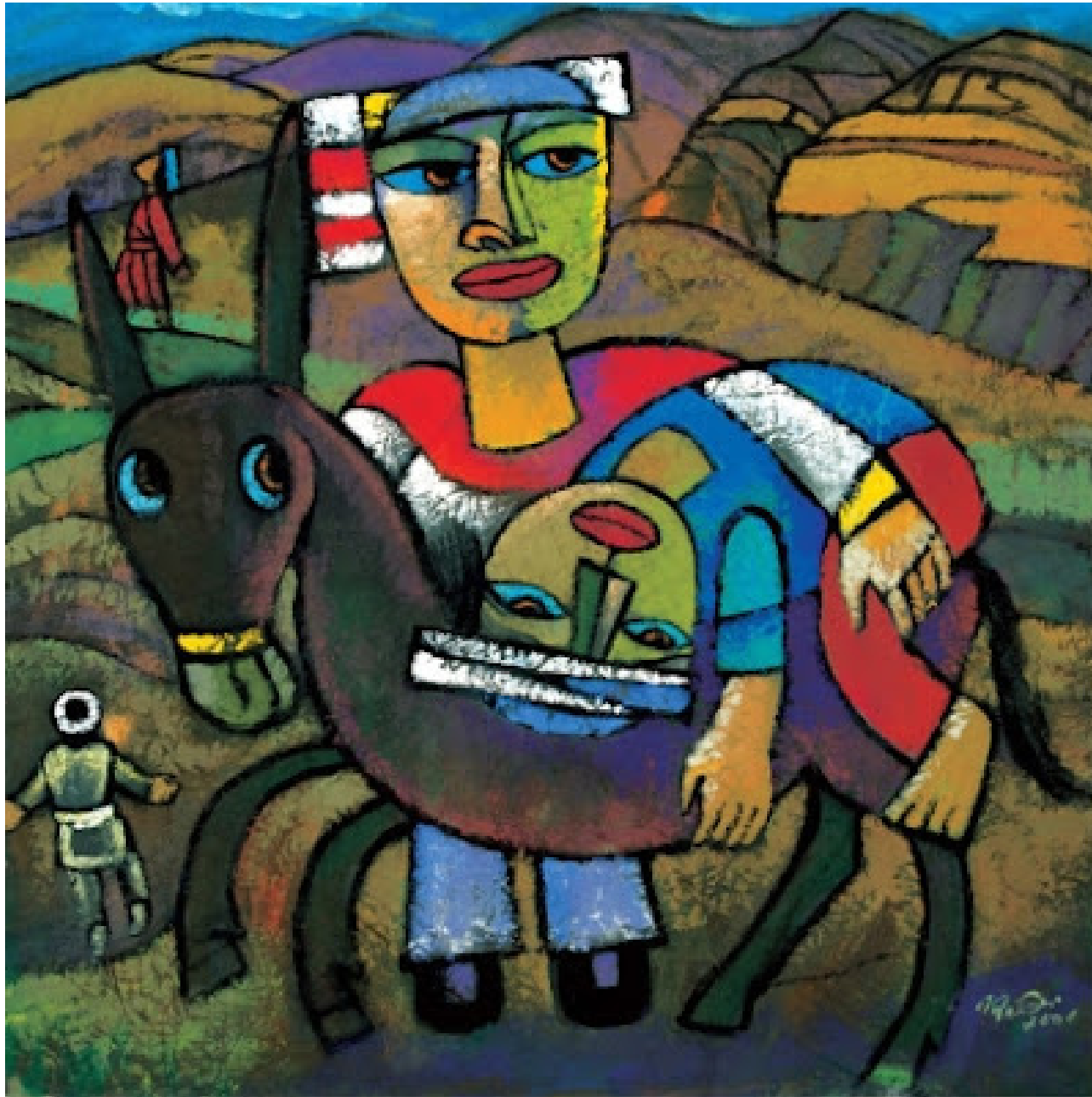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2024 아홉 번째 호 [NO.7]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 의학과 / 인문사회 의학연구소





‘옴니버스(Omnibus)’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체 인문사회의학 교육과정의 명칭입니다. 2009년부터 인문사회의학과의 새롭게 개발·운영하고 있는 ‘옴니버스’는 ‘가톨릭 정체성을 지닌 좋은 의사 양성’을 그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옴니버스’라는 인문사회의학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자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는 **옴니버스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옴니버스 스토리를 통해 옴니버스 교육과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활동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옴니버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진정한 생명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루카 10, 37)를 **옴니버스 스토리**의 부제로 선정했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CONTENTS

시론

04 물드는 선(善) 성기현

옴니버스 교육과정 소개

06 의학과 / 의예과 옴니버스

옴니버스 이야기

07 의학예비과정 | 〈치유자 리더십: 인물탐구〉 박승만

옴니버스 교수 칼럼

12 과학의 역사에서 지식의 역사로 원주영

옴니버스 학생마당

14 〈비움과 채움〉: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채우다 심주은

16 〈생명과 윤리〉 강의를 듣고 류재웅

18 〈의미와 감성〉, 〈사유와 이성〉 평가서 한상우

옴니버스 소모임

20 AI시대, 우연희(優演喜) 포럼으로 사고의 틈을 넓히자 박병태

도서소개

22 도서소개

옴니버스 동정

24 교수개발특강, 정기심포지엄, 공동학술대회

2024 | 아홉 번째 호 [NO.9]

발행일 2024년 3월 2일
발행인 김평만
발행처 인문사회의학연구소
Institute of Medical Humanities & Social Scienc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Medicine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TEL 02)3147-8484(인문사회의학연구소)
02)3147-8481(인문사회학과 사무실 대표번호)
기획·편집 E-mail omnibus@catholic.ac.kr
편집위원 인문사회의학연구소
권영대, 김수정, 김영호, 김평만, 박승만, 서윤정, 성기현,
원주영, 이영재, 전은정, 정현석, 하영숙

물드는 선(善)



성기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과
옴니버스 교육과정 책임교수

13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의학과 옴니버스 과정의 일곱 번째 블록! 이름하여 옴니버스 7번, 〈인간과 사회 II〉 시간은 주로 사람의 몸, 고통, 죽음에 대해 다룬다. 몸은 분명 세포 덩어리이자 생화학적 실체이지만, 동시에 문화적-사회적 시선의 산물이기도 하다. 구릿빛 얼굴을 보며 사람들은 때로 건강함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피부관리 실패’(?)를 연상하기도 한다. 하긴, 요즘은 그토록 강인해 보이던 야구선수도 얼굴에 하얀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경기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의과대학에서는 주로 대상화된 생화학적 실체로서의 몸에 대해 가르친다. 이러한 관점에 엄청난 예리함과 강점이 있긴 하지만, 강렬함과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몸의 사회성이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아름다움에 경도된 나머지,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살을 빼다가 건강을 해쳐, 대상화된 생화학적 실체로서 몸을 바라보는 의과학자들에 의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도 한다. 이런 위기의 순간을 야기한 것은, ‘사회적 시선’이다. 천명의 입이 쇠를 녹인다고, 수많은 사람이 지닌 어떤 통념이 하나의 거대한 집단 의식이 되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 사람의 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생화학 법칙이 아니라 문화적 법칙이다. 몸을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시선으로 인해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원 역시 달라진다.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지만, 사람의 통증이 몸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통증, 영적인 통증 등 수많은 종류의 아픔이 존재한다. 이를 치유하려면, 결국은 인간 존재가 지닌 입체적인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

나 이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 오직 한가지의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최후의 결말이 죽음이다.

이렇게 서로 얹혀있는 몸과 고통, 죽음에 세계에 대해 다루는 옴니버스 7번 주간 목요일에, 완화의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병동에 대한 수업이 있었다. 사람들은 병원에 살기 위해 오지만, 병원 안에 있는 이 병원(호스피스병동)을 찾는 사람들은 잘 죽기 위해 그곳으로 향한다. 의미있는 삶의 결말을 찾는 분들의 마지막 시간이 최대한 품위있고 존엄하도록, 호스피스 병동의 많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완화의학과 교수님들의 말씀에 이어, 호스피스 병동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낸 한 여성분의 (가족으로서의) 호스피스 병동 체험담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담담하게, 딸의 시선으로 조근조근 풀어가는 그 분의 이야기에 모든 학생의 시선이 모였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게다가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의 고통스런 이야기 앞에 ‘그 죽음은 사실 알고 보면 생화학적 실체의 어떤 과학적 변화로 설명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점점 더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진지해질 무렵,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 말씀하시던 그 가족분께서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저는 서울성모 호스피스 병동이, 삶의 끝자락에 이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이전 이야기의 연장이었지만, 이 때 갑자기 여성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은 인턴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선배님이신 윤○○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또박또박, 증언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도 선한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윤 인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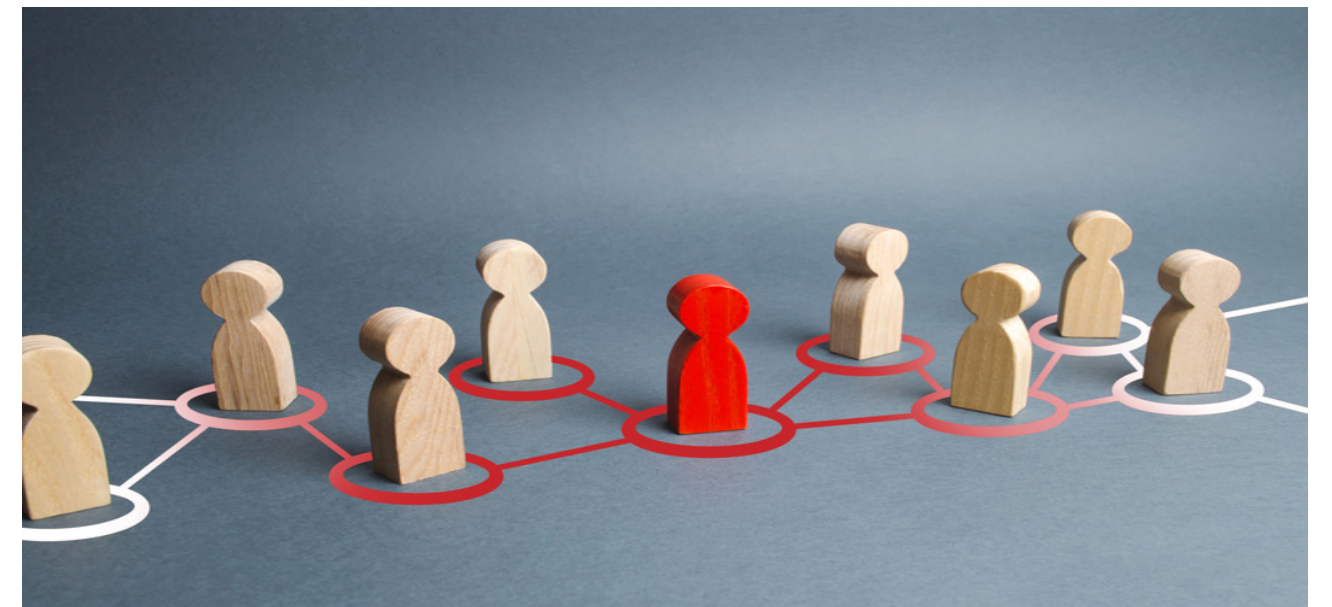
“갓 인턴이 돼서 나오셨는데요.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매일 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정말로 너무도 담담한 태도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도 따뜻하게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는 그 인턴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지닌 채 눈을 감으셨어요. 다시 한번 그 인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절절한 슬픔과 이에 따른 고통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젊고 헌신적인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로 끝을 맺었다. 이때, 잊고 있던 몇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과연, 윤 인턴은 자신이 행했던 헌신이 이분께 이토록 큰 영향과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을까? 본인이 부린 선한 씨앗이, 시간이 흘러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그렇게 자라난 씨앗을 품고 있던 한 사람의 마음은, 자신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씨앗을 부려준 사람을 기억하고, 이에 대해 말하고, 그래서 본인도 선의 단편이 담겨 있는 또 다른 꽃가루를 뿌리게 되는 - 이 모든 과정을 윤 인턴은 알고 있을까? 선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한 가족에게 전해지고, 그 가족의 일원이 100명의 학생 앞에서 그 영향력을 증언하여 또 다른 미세한 영향을 전하게 되는 이런 과정과 결말을, 과연 윤 인턴은 예상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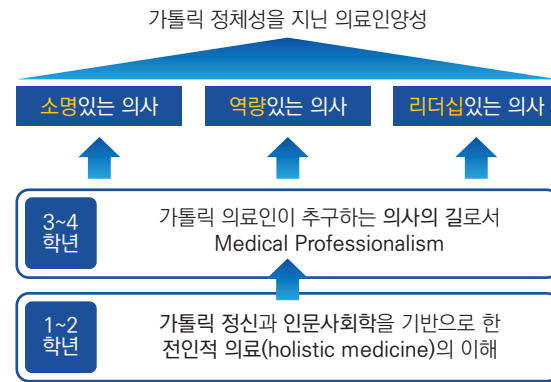
늘 그랬다. 이십 대 신학생 시절,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던 동료 신학생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토록 큰 울림과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그걸 아는 것엔 아무 관심도 없어 보였다. 그저 무심히 할 일을 할 뿐. 무심한 행동. 늘 그렇게 행해와서, 또 그 일을 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또 전혀 자랑할 것도 없는 행동인, 그런 덕이 하나의 습관이 된 사람의 선행. 옛 사람들이 덕(virtus)을 좋은 행동을 더 수월하게 하는 ‘습관’이나 ‘품성’이라는 의미에서 라틴어 ‘Habitus’의 일종이라 이해하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선한 영향력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질 보기 좋은 장면들의 연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 듯하다. 그 영향은 말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시간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의 규모는 또한 사람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규모를 뛰어넘는다. 좋은 습관을 키워 선행이 자연스럽게 발현할 조건을 조성하기. 이 조건을 통해 행해진 어떤 행동이 본인도 모르게 그저 자연스럽게 선행이 되도록, 평소에 선을 반복하기. 나 자신 실천해 오지 못했던 일들을 떠올리니, 한편으론 부끄럽고 한편으론 설렌다.



A. 의학과 옵니버스

의학과 옵니버스 교육과정은 4년에 걸쳐 총 13개의 단위과정으로 구성되어 약 300시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2017년 8월에 발간된 본 옵니버스 스토리 창간호와 제2호에서는 [전인적 의료의 파운데이션]와 [의료윤리와 연구윤리]를 소개했고, 제3호~제8호에 걸쳐 [사회체험실습], [의료현장에서의 리더십], [직업환경의학], [의료인의 삶과 여가]의 교육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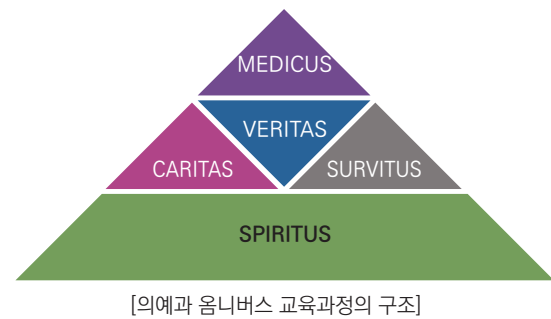


●의학과 옵니버스 교과목

구분		1학기	2학기
1학년	2. 인간의 길	1. 파운데이션	4. 사회체험 실습
2학년		3. 의료와 사회 I : 지역사회와 보건의료 5. 의료와 인간 I	6. 의료와 사회 II : 직업환경의학 7. 의료와 인간 II
3학년	8. 의료인의 길	9. 의료 전문직업성의 기초 10. 의료현장의 리더십	11. 의료윤리와 연구윤리
4학년		12. 의료와 사회 III : 의료정책과 법 13. (캡스톤) 진로 및 관심분야 발표제	

B. 의예과 옵니버스

의예과 옵니버스 교육과정은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고자 2015년부터 예과 2년 동안 17개 교과목과 2회의 공동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의예과 옵니버스 교과목

구분	연관목표	주교육내용	연계 과목
Spiritus	성(聖)	영성교육	비움과 채움 I, II
Veritas	지(知)	문사철 교육	의미와 감성/ 이성과 사유 / 고전강독 / 비판적사고와 글쓰기
Caritas	정(情)	예체능 교육	통합예체능 I, II
	의(意)	윤리 도덕성 사회교육	생명과 윤리 / 사랑과 생명 / 사회학 / 인간행동
Servitus	화(和)	소통 및 공동체 교육	치유자 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 정치와 경제
			공동체교육 I. 비전과 미션 II. 리더십 트레이닝
Medicus	의(醫)	인문사회의학 교육	의료와 문학 / 의학사 / 건강과 사회

치유자 리더십: 인물탐구

과목 소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예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매주 2시간, 15주간 ‘치유자 리더십’이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교육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전반기 7주 동안은 질병, 고통, 치유, 치유자의 의미를 확인하고, 치유와 사회정의의 관계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며, 후반기 6주 동안 진행되는 인물탐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의 사례를 살펴본다. 다시 말해 전반기 수업이 의료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의료전문직업성의 여러 요소를 제시한다면, 후반기 인물탐구 과정에서는 개별 인물의 삶을 통해 여러 사회적, 개인적 맥락에서 의료전문직업성이 탐색되고 구현되는 과정을 살핀다. 이 글에서는 후반기 인물탐구 과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인물사의 가치

인물사는 역사학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 가운데 하나이다. 고대의 『사기』(史記)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비롯하여 이후의 많은 역사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역사가 수많은 전기의 정수로 이루어진다는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의 말은 인물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물론 인물사의 가치를 낮게 보던 이들도 없지 않다.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6)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역사가, 그리고 개인보다는 구조를 강조하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와 아날학파 역사가 등에게 인물사는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개인의 삶을 다시금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미시사

의 등장과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강조하는 인류학의 영향, 여기에 공적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이들의 삶에 주목하는 탈식민주의 역사학, 페미니스트 역사학 등의 부상과 함께 이른바 ‘전기적 전환’(biographical turn)이 일어나면서, 인물사는 유력한 역사 연구 방법론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한편, 의학교육에서 인물사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 존스홉킨스대학교의 윌리엄 오슬러(William Osler, 1849-1919)와 같은 이들은 의학교육이 과학적인 측면에만 집중할 경우 ‘좋은 의사’가 아닌 ‘의료 기술자’를 양성할 뿐이라 우려했다. 그가 내어놓은 대안은 인물사를 통해 바람직한 의사상을 제시하는 이른바 ‘오슬러 방법’(Oslerian method)이었다. 오슬러는 토머스 리너커(Thomas Linacre, c. 1460-1524), 윌리엄 하비(William Harvey, 1578-1657), 토머스 시드넘(Thomas Sydenham, 1624-1689) 등의 삶으로부터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생생하고 새로운 이상”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학생에게 이를 제시함으로써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의 의학 교육 또는 의학사 교육에서 인물사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물사의 강조가 자칫 ‘휘그주의적’(Whiggish) 의학사로 이어질 가능성 탓이다. 오슬러와 같이 여러 위대한 의사, 특히 백인 남성 의사의 삶에 집중하는 방식의 역사 서술과 교육은 자칫 의학사의 주체를 기득권으로 한정하고, 의학사를 진보의 연속으로 기술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의학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터스키기 매독 실험 사건이나 731부대의 생체 실험의 예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의학사는 진보의 역사가 아니다. 더 나아가,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주목한 이들이 보여준 것처럼,

박승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과 교수

의학사의 행위자 역시 의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나 넓은 의미의 치유자, 더 나아가 환자 모두가 의학과 상호작용하는 적극적인 주체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오슬러 방법이 맥락을 사상(捨象)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오래된, 하지만 여전히 생생하고 새로운 이상”이라는 문장에서도 보이듯, 오슬러는 여러 인물의 삶에서 맥락을 초월한 항구적인 가치를 끌어 올리고자 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선명하게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자가 이러한 덕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이는 상황학습과 경험학습을 강조하는 의학 교육 이론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적지 않은 한계이다. 롤 모델링을 활용한 교수법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지닌 현대 사회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은 오슬러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인물사는 폐기되어야 할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 오슬러 방법은 인물사를 활용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다.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통해 오슬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인물사는 여전히 유용한 방법론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맥락의 강조이다. 다시 말해 오슬러 방법에서처럼 인물로부터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를 읽어내기보다는, 인물 각각이 구체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 1821-1902)의 삶 속에서 단순히 사회를 향한 관심이라는 덕목을 강조하기보다는 피르호가 어떻게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강조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입체적이고 다양한 인물의 선정이다. 일부 위대한 의사, 주로 백인 남성 의사에 집중하는 오슬러 방법은 의학사의 다양한 주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행위자, 이를테면 여성 의사나 소수 인종의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을 인물사의 대상으로 선택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물의 공과(功過)를 모두 드러내어야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인물의 위대함에만 집중하는 오슬러 방법은 자칫 의학의 역사가 진보의 역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일견 인물의 한계와 단점을 드러내는 일은 의료전문직업성의 함양에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현실의 복잡다단함과 행위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인물선정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치유자 리더십 인물탐구 교육 과정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먼저 수업의 응집성을 위해 여러 인물을 무작위로 배치하기보다는, 주마다 하나의 주제를 할당하고 주제별로 3명, 또는 4명의 인물을 배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먼저 인물탐구 1주차 ‘전인치료’에서는 환자라는 존재를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본 이들, 2주차 ‘사회의학’에서는 건강의 결정 요인을 사회로 확장한 이들, 3주차 ‘의학의 지평’에서는 질병을 넘어 건강 자체, 죽음, 발병 가능성을 의학 연구의 대상으로 새롭게 조명한 이들, 4주차 ‘한계와 도전’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는 흑인, 약소 국민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을 극복한 이들, 5주차 ‘국제보건’에서는 나라의 국경을 넘어 세계의 건강 문제에 헌신했던 이들을 다루기로 하였다.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는 아래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인물을 선정했다. 첫째, 시대를 고려하여 히포크라테스를 제외한 모든 이를 근현대의 인물로 선택했다. 보통의 인물사 수업은 대부분 전근대의 인물을 활용한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맥락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인물을 선택할 경우, 학생이 시간적 거리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인물의 삶에서 배운 바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치유자 리더십 인물탐구에서는 동시대의 인물 또는 가까운 과거의 인물에게 집중하였다. 물론 여전히 평가가 진행 중인 인물이 대부분이라 안전하지 못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동시대성이 주는 활력과 이에 따른 교육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성비를 고려한 이유는 오슬러 방법이 그러하듯이 인물사가 대개 남성을 위주로 교육되기 때문이다. 이는 역사가 자신이 사회의 젠더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여성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 여성 입학이 허가된 것은 1945년의 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젠더 불평등을 수업에서 반복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임상, 연구, 사회 활동 전면에서 활약한 여성을 적극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17명의 인물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명을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의예과 옴니버스 : Caritas

마지막은 인물의 범위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의학사는 치유자의 범위를 의사로 한정하지 않는다. 의사가 아닌 이들도 광의의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의사의 일이라 생각되는 협의의 치료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사뿐 아니라 비의사 의료인, 또는 비의사 연구자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17명의 인물 가운데 BRCA1 유전자와 유방암 발병의 관계를 규명한 메리 클레어 킹(Mary Claire King, 1946-)이 여기에 해당한다. 향후 인물을 추가하고 변경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할 계획이다.

수업 진행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각 인물에 대한 조별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교수자는 조별 발표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시하고, 각 주의 주제에 관련된 인문사회의학 개념을 강의하였다. 먼저 조별 발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모두 열일곱 명으로, 이 가운데 함께 활동했던 부부와 모녀를 하나로 묶으면 모두 열다섯 조가 발표할 분량이 된다. 학습자는 6-7명이 한 조를 이루어 이들 인물 가운데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조별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는 한 주당 세 조씩 이루어지며, 각 주에 발표되는 3-4명의 인물은 하나의 주제로 포괄된다. 즉, 총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한 주당 세 조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에 필요한 자료는 교수자가 미리 제시하였다. 자료는 크게 세 종류, 인물이 직접 쓴 일차 자료와 인물의 삶을 추린 짧은 전기, 그리고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담은 연구 논문으로 구성된다. 일부 인물은 테드(TED)나 영화 같은 영상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렇게 교수자가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물에 관한 선입견을 형성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먼저 전기와 연구 논문의 경우 당대의 시대 상황과 인물의 과오를 고루 담은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탐구 대상이 작성한 일차 문헌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인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매시간 세 조의 인물 발표가 끝난 뒤, 교수자는 주별 주제에 따른 인문사회의학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전인 치료를 다루는 인물탐구 1주 차에서는 건강과 질병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인 생의학 모형(biomedical model)과 생정신사회 모형(biopsychosocial model)을 살펴보고, 전자의 한계와 후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각 조가 발표한 구체적인 사례를 개념으로 정리하여, 의료전문직업성의

기초가 되는 의학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려는 의도이다. 각 주의 주제와 선정 인물, 개념은 마지막 표에 정리하였다.

다섯 번의 조별 발표 이후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글쓰기 방법을 교수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개별 보고서의 작성 요령을 강의하는 시간이지만, 넓게는 인문학적 글쓰기의 기초를 교육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인물에 관한 문헌 정보를 검색하고, 이렇게 파악한 인물의 삶에서 나름의 문제의식을 끌어 올리며, 이를 중심으로 인물의 삶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고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론과 본론, 결론을 구성하는 방법과 완성된 글을 퇴고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교수했다.

마지막으로 평가는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조별 발표와 5,000자 분량으로 작성된 조별 보고서, 그리고 3,000자 분량으로 작성된 개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별 보고서는 발표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교수자의 보충 설명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개별 보고서는 조별 발표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물을 주제로, 자신이 미래에 되고자 하는 의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수업 성과

인물사를 이용한 인물탐구 수업의 성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물을 바라보는 역사학의 방법론에 익숙해지는 것이다.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치유자 리더십 인물탐구 강의는 예과 2학년 과정의 의학사 수업과 연결되는 일종의 선수 과목으로 기능한다. 구체적인 시대상 속에서 인물의 삶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경험이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과 조응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이렇게 학습하고 익힌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신이 밟을 디딘 현대 한국의 맥락을 돌아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문직업성의 함양에 필수적인 사회에 대한 성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치유자 리더십 인물탐구 주별 주제와 선정 인물, 연관 개념

수업	주제	선정 인물	연관 개념
1주차	전인치료: 연결된 몸과 마음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c. 460~c. 370 BC) 발린트 미하이(Bálint Mihály, 1841~1921) 헬렌 플랜더스 던바(Helen Flanders Dunbar, 1902~1959)	생의학 모형, 생정신사회 모형
2주차	사회의학: 질병의 또 다른 원인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 1821~1902) 사라 조세핀 베이커(Sara Josephine Baker, 1873~1945) 조규상(曹圭常, 1925~2013)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3주차	의학의 지평: 건강, 죽음, 가능성	이니스 피어스(Innes Pearse, 1889~1978) 조지 윌리엄슨(George Williamson, 1884~1953)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übler-Ross, 1926~2004) 메리 클레어 킹(Mary-Claire King, 1946~)	의료화, 생의료화
4주차	한계와 도전: 차별의 극복	메리 퍼트남 자코비(Mary Putnam Jacobi, 1842~1906) 매릴린 개스톤(Marilyn Gaston, 1939~) 김점동(金點童, 박에스더, 1876~1910)	젠더 편향, 젠더 혁신
5주차	국제보건: 세계의 건강 문제	이종욱(李鍾郁, 1945~2006) 하와 अब्दी(Hawa Abdi, 1947~) 데코 모하메드(Deqo Mohamed, 1975~) 이태석(李泰錫, 1962~2010)	건강 불평등, 공중보건, 국제보건

둘째는 현대 사회와 의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학습하는 것이다. 의료전문직업성을 함양해 나가는 정체성 형성 과정의 핵심에는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가 놓여 있다. 이는 사회와 사회 속의 의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조별 발표에 이어지는 인문사회의학의 주요 개념에 관한 강의에서는 앞서 언급한 질병에 대한 생의학 모형과 생정신사회 모형에 더하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의료화와 생의료화, 젠더 편향과 젠더 혁신, 공중보건과 국제보건 등의 개념을 소개하며, 이는 현대 사회와 의료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틀이 될 것이다.

셋째는 인물의 삶으로부터 의료전문직업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여러 층위로 구현된다. 하나는 인물 선정의 과정이다. 학습자는 주어진 열일곱 명의 인물 가운데 조별 발표와 개별 보고서 작성을 위해 두 명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이때 두 명은 수동적인 무작위 배정이 아닌, 각 조와 개인의 능동적 판단에 따라 선정된다. 학생은 미리 제시된 각 인물의 간략한 소개를 참고하여 인물을 선택하며, 일부 학생은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 진학 이전에 품었던 의사상을 점검하고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를테면 어떤 학생은 루돌프 피르호의 예를 통해 고등학생 시절에 품었던 질병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하였으며, 다른 학생은 엘리

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삶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라는 목표를 발전시켰다.

또 다른 층위는 조별 발표가 진행되고 개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본격적으로 자신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의료전문직업성을 향한 정체성 형성에 돌입한다. 일부 학생의 경우, 주어진 인물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단점과 사회의 문제를 살피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상을 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조규상(曹圭常, 1925~2013)의 삶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침묵하는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사회 정의를 향한 관심과 실천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더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일부 학생은 사회 구조에서 비롯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극복과 구조 개선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의 경우, 여성으로서 받은 차별을 극복해 나간 인물을 개별 보고서 주제로 선정하고, 현대에 지속하는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다짐했다.

물론 어떤 구체적인 의사상을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몇 년의 학습 계획을 서술한 학생도 있었다. 한 학생은 인물탐구 수업을 통해 의료가 여러 차원에 걸친 복합적인 실천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학업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의예과 옴니버스 : Caritas

고민해 볼 것이라 썼다. 이는 정체성 형성의 실패라기보다는 의학 전(pre-medical) 단계에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보인다. 많은 논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체성 형성 과정은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예과에 해당하는 의학 전 과정과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과 후가 다를 수 있다. 아직 의과대학에 입학한 지 한 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이 수업을 통해 자아 탐색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학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료전문직업성의 형성 과정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개선할 지점도 없지 않다. 하나는 강의 규모이다. 백여 명에 달하는 예과 1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별 발표와 조별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은 가능하지만, 개별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수자를 추가하거나, 분반 수업의 형식으로 같은 수업을 여러 명이 동시에 개설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드백과 수업의 내용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예상된다. 다른 대안으로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습 공동체 제도인 '셀'(cell)을 활용하여, 담당 지도교수가 개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를 수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담당 지도교수에게 의료전문직업성의 교육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장기적 계획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체성 형성 과정은 의학 전과 임상 실습 전, 임상 실습, 더 나아가 수련 과정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다. 따라서 예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자 리더십 인물탐구 강의에 이어 추가로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이 설계되고, 이들 과정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정체성 형성 과정을 지속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인문사회의학 교육 과정인 옴니버스 교육 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전문직업성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치유자 리더십 이후 정체성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종적 연구가 부재하므로, 추후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과학의 역사에서 지식의 역사로



원주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학과 연구강사

과학이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주개발에 관한 이야기나, 환경재난에 관한 연구들이 일간지를 장식하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학이 현대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마찬가지로 과학의 역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해 왔다. 이 글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역사학의 한 분야인 과학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과학의 역사는 과학사라는 학문이 태동하기 이전부터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식민지 조선은 물론 해방 이후에도 과학의 역사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인 자연과학개론의 일부로 다루어졌다. 1960년대 전문적인 과학사학자들이 등장하였고, 1970년대부터 서울과 지방의 대학들에서 독립적인 과학사 과목이 운영되었다. 현재 과학사는 40여 곳 이상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대학에서 과학사 교양 교과목이 개설되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과학이 현대사회의 수많은 혁신과 변화를 이끈 분야였다는 데 있었다. 1960~70년대 각 대학에서 출판되었던 자연과학개론 교과서들은 현대사회를 “과학기술 시대”로 정의했다. 게다가 과학의 역사는 이론적 기초가 없어도 과학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어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공의 학생들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과학의 역사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객관성 혹은 합리성을 교육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1960년대부터 대학에서 과학의 역사를 가르쳤던 박익수(1924~2006)는 이러한 교육적 효과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 따르면 과학은 특별한 정신을 갖는 분야였는데, 그 정신이란 갈릴레오가 종교재판 직후 “그래도 지구는 움직여”라고 말한 것처럼 “끝내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했다. 박익수가 과학의 특별한 정신을 강조했던 이유에는 더 많은 학생이 과학의 특별한 정신을 따르므로써 과학 분야의 발전을 이끌게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DDT, 방사능 낙진, 프레온가스 등과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효과만 발휘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과학의 특별한 정신이 재평가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같은 시기 과학사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만들어졌다. 영미권의 대학들에서는 1950~60년대에 과학사 전문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면, 한국에서는 1980년대 초 과학사 전문 학위과정이 설립되었다. 이후 과학의 역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역사학의 전문분야로 과학사가 만들어지면서 역사학자들은 과학을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특별한 정신이 내포된 분야가 아닌,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는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사학자들은 갈릴레오 재판에서 과학자가 합리적이고, 교회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묘사되었던 서술들을 바로 잡았다. 즉 교회가 과학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고, 갈릴레오는 과학의 특별한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종교와 대립하기만 했던 인물도 아니었다. 전문 과학사 연구자들이 재서술한 갈릴레오는 가톨릭 신자로서 교회에 매우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과학사학자들은 과학의 특별한 정신으로 불렸던 객관성이 영원불변한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19세기에 등장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 이전의 학자들은 보편적인 자연법칙을 탐구하기보다 경이로운 자연현상 탐구에 주력했고, 신이 창조한 우주의 질서를 찾는 데 몰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문 학문 분과로 과학사가 등장하면서 과학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즉 과학이 고대 그리스에서 출현하고, 과학혁명 시기에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특별한 정신이 내포된 이상적인 분야로 이해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은 과학자 개인의 헌신이나 실험실과 같은 공간적 영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지식생산' 활동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사학자들을 의도적으로 추구한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과학의 본질, 과학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었다. 예를 들어 2015년 출판된 한 물리학 논문에는 5000명이 넘는 연구자가 참여해 전체 33장의 중 9장이 저자들의 이름을 적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현대과학은 과학자 개인의 열정, 헌신만으로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집단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었다. 이 점에서 과학사학자들은 점차 역사 서술의 대상을 과학이란 단어로 한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과학의 역사를 과학이란 단어로 한정할 수 없다면, 과학사가 무엇이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과학사학자들은 과학사를 ‘지식의 역사’로 지칭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특정한 지식의 출현과 확산 과정을 다양한 사회적, 물질적 토대로 맥락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이라는 단어로 구획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모든 지식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는 이유는 특정한 지식이 특정한 사회적, 물질적 맥락에서 과학적 권위를 획득하고, 또 권위를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사를 과학의 역사가 아닌 지식의 역사로 살펴본다면, 과학사의 서술 대상은 과학자 개인, 과학 연구기관, 과학 제도 등을 넘어서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사실 연구의 차원에서 역사서술의 대상을 과학사로 한정하는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파스퇴르나 플레밍과 같이 의학사의 서술 대상이면서 과학사의 연구이기도 한 인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학사학자와 과학사학자가 때로는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각 분야의 역사 연구자들 역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의 초대 주임교수이자, 한국 의학사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김두종(1896~1988)은 1960년 7월 16일 출범한 한국과학사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고 오랫동안 한국 과학사의 성장에 기여했다.

과학사를 지식의 역사로 여긴다면 그 역사의 서술 대상은 가톨릭의 역사와도 분리될 수 없다. 예수회 선교사로 중국에서 활동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선교활동 역시 과학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마테오 리치에 영향을 받은 이지조(李之藻, 1569~1630)가 천문학적 지식과 천문관측 기술인 아스트롤라베(Astrolabe)를 다룬 책인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을 저술했다. 이 책은 17세기 중반부터 조선에서 유행했으며, 18세기 실학자 유금(柳琴, 1741~1788)이 조선 후기의 천문시계라 불렀던 혼계통헌의(渾蓋通憲儀)를 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과학사를 지식에 대한 역사로 간주한다면 과학사 서술의 대상은 실험실이라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식이 권위를 얻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물질적 토대는 물론 가톨릭 선교의 역사까지 포착하는 역사서술 작업이 된다.



〈비움과 채움〉: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채우다



심주은
(의예과 2학년)

‘이건, 대체 뭘 수업이지?’
처음 수업 시간표를 받고, 금요일 아침에 자리한 생소한 과목명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었습니다. 〈비움과 채움〉은 대체 뭘 비우고 뭘 채우는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수업인지. 수업 계획서를 보고도 영성은 무엇이며 교수님 성함에 붙어 있는 “Fr.”은 무슨 의미인지. 생소한 개념들에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으며 지금껏 해왔던 답을 찾는 공부라 아닌, 길을 찾는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캔버스 없는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 쉬이 감을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명상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원가를 따라하며 매뉴얼이 주어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했는데, 명상은 저와 그다지 잘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상만 시작하면 이유 없는 눈물이나 원인 모를 구역질이 찾아왔고, 명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잠깐 잔다는 느낌으로 명상을 시도할 때만 시간을 다 채우고 눈을 뜨며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느 정도 낮잠 시간처럼 활용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 찾아오고, 중학교 때 졸업한 줄 알았던 방학 숙제가 있다는 소식에 경악하기도 잠시. 봉사 사이트를 뒤지며 봉사 시간 받기에 급급하던 봉사가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내는 굿워크 프로젝트는 제법 흥미가 동했

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번쯤은 하고 싶었던 주제인 ‘사소한 차별’을 주제로 왼손잡이들이 겪는 불편을 조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늘을 발견하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명 중1명은 왼손잡이인데, 그렇다면 10개 중1개 정도는 왼손잡이들을 위해 만드는 게 맞지 않냐는 말을 하며 눈에 더 넓은 세상을 담았습니다.

2학기가 되고, 또다시 허공에 그림을 그리려 허우적대며 수업을 듣던 어느 날. 자기계발서를 읽고 아침과 밤에 루틴하게 할 것들을 적어 보다가, 슬쩍 자기 전에 명상을 끼워 넣어 봤습니다. 어플의 도움을 받아 오랜만에 다시 시도한 명상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했던 날은 그런 자신을 위로했고, 남에게 너무 상처받았던 날은 그런 이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채움 교육 중 ‘용서와 화해’ 수업을 들었던 날. 허공을 휘젓던 붓이 마침내 없는 줄만 알았던 캔버스에 닿았습니다. 투명한 캔버스 위에는 서툴지만, 나름 괜찮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1년짜리 수업이지만, 제가 제대로 비우고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제게 상처로 남아있던 한 사건과 관련하여, 저를 아프게 했던 이를 용서했습니다. 화해는 못했지만, 그를 용서함으로써 제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했던 삶에만 들어진 10분의 빈 공간. 자기 전 감정에, 근육의 움직임에,

생각에, 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습니다. 그렇게 빈 마음의 공간은, 우정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자비로. 어쩌면 여전히 흐릿하기만 했던 개념인 영성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섰습니다.

비우고 채우며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당시 인터넷에서 잠시 유행했던 사진에 아이디어를 얻어 또 다른 굿워크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강의실에서 늘 나오는 음료 쓰레기. 얼음, 남은 음료, 플라스틱 빨대와 컵, 종이 컵 홀더는 모두 뒤섞여 일반쓰레기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컵 홀더를 투표용지로 쓸 수 있게 해서 사소하지만 흥미가 동하는 투표함을 만들고, 남은 음료는 전용 통에, 플라스틱은 분리수거함에 넣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몇 주 만에 분리수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여름방학의 굿 워크 프로젝트와는 또 다른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주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히,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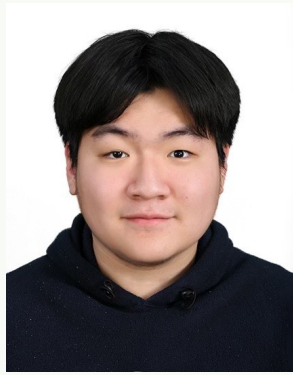
아직도 1학기 초에 들었던 수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해온 것과 너무 다른 양상의 개념은 갑작스레 받아들이기는 영 어려워서, 명상을 비롯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그 강의를 들으면 전혀 다른 것이 보일 것 같기도 하지만, 붓이 캔버스에 닿

는 듯한 깨달음의 순간은 저마다 다른 때에 올 테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굿워크 프로젝트도 만약 방학 중에 계획하고 학기 중에 진행했다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분리수거 프로젝트 같은 것은 학기 중이나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서, 여름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한들 진행하지도, 그 부딪힘을 느끼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을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에는 후회가 없지만, 결국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제대로 알릴 기회는 얻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하나 분명한 것은, 물음표로 가득 찼던 금요일 오전의 그 수업이 어느 사이엔가 제 인생을 정말 많이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법, 그 자리에 세상을 채워나가는 법, 그리고 세상에게 보답하는 법. 답이 아닌 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비웠고, 그곳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2023년, 잊지 못할 수업이 하나 늘었습니다.

〈생명윤리〉강의를 듣고



류재웅
(의예과 2학년)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학년을 지내오며 느낀 것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Omnibus Omnia’ 가운데 ‘Omnia(모든 것을)’가 지니는 사명과 무게를 느낍니다. 제가 예과 1학년을 지내오며 깨달은, 의사가 갖추어야 할 면모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의사가 다양한 환자를 만나며, 다양한 질병을 마주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매 〈생명윤리〉 과목은 제게 다양한 관점이 왜 중요한지 알려준 과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윤리〉 수업은 대부분 사례토론으로 시작하여, 사례토론으로 끝납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말미에 오늘 배운 것에 관해 사례와 함께 질문을 던져 주시면, 우리가 글을 써서 제출하고, 우리의 글은 다음 수업 첫 교시에 교수님을 통해 소개됩니다. 예컨대 사례의 요지는 ‘전두엽 피질이 손상된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조현병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제삼자인 어머니에게 약을 처방해도 되는가?’, ‘자신의 임무로 복귀하게 할 의료적 처치를 거부할 권리를 군인은 갖는가?’, ‘문화적으로 할례를 강요받는 소녀에게 할례를 행해도 되는가?’ 등이었습니다.

곤란하면서도 새로운 사례토론 경험은 우리에게 간접적 체험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사례들에 관해 생각하며 의사로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상상하게 되었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기 위해 고민해야 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 중 ‘문화적으로 할례를 강요받는 소녀에게 할례를 행해도 되는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문화적으로 할례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소녀의 어머니가 전통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가 아닌 위생적인 환경에서 할례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온 상황입니다. 의사로서 할례를 행하자니 그 자체로 옳지 않지만, 행하지 않자니 소녀가 비위생적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은 할례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며 우리는 각자 나름의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공유되며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교수님은 사례에 관해 적은 글들을 읽어주시며 학생의 독창적인 부분이나, 잘못 생각한 부분, 우리가 추가로 고민해 볼거리가 있는 부분들을 짚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같은 사례 속에서 다른 학우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소들을 글에 적어 냈을 때, 우리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사고(思考)에 새로운 자극이 되어 줍니다. 사고에의 자극은 다음 사례토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 다음, 또 다음 사례토론에 계속 축적됩니다. 우리는 점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사려의 풍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딜레마 상황에서의 방임은 자칫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단순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빛을 발하는 것은 강의 목차입니다. 〈생명윤리〉의 매 수업 제목은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각 조항입니다. 우리는 매번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을 통해 다양한 원칙(principle)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윤리적 체계의 개념들을 얻게 된 우리는 사고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단순 대처하기보다 나름의 논리를 갖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게 되고, 점차 다양한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Omnibus Omnia’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 부분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mnia를 이룰 조각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기준과 질서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Omnibus 교육과정의 한 축으로서 〈생명윤리〉 강의는 의예과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각을 심어주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일지 생각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윤리〉 강의가 앞으로의 의과대학 생활의 지표가 되기를, 예과 1학년 학생으로서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 배움이 제가 의사가 되어서도 ‘Omnibus(모든 이에게)’ 사랑을 전함에 도움이 되어 주길 소망합니다.



〈의미와 감성〉〈사유와 이성〉평가서



한상우

(의예과 2학년)

안녕하세요. 정현석 교수님의 〈의미와 감성〉과 〈사유와 이성〉 교과목의 평가를 맡은 한상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 교과목의 학습 주제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미와 감성’은 신화를 통해 교양을 쌓는 학문으로,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비롯한 고대 헬라-로마 신화의 전승들을 통해 서구의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의 원형을 접하고 이로부터 후대의 사상에서 다루는 중요한 문제들에 접근하는 인문학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유와 이성’은 서양 철학사를 통해 교양을 쌓는 학문으로, 서양 철학사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개진한 입장들을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문제들과 함께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시대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각 개인의 삶에 힘을 더해줄 고유한 세계관과 인간관,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초를 모색합니다.

두 교과목 모두 인간의 삶에 대해 고찰하며 의료인이 가져야 할 사유 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교과목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의견만이 아닌 일부 학우들의 의견도 반영하였음을 알립니다.

두 교과목은 전반적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일리아스』 등의 고전은 재미있는 서사를 가지고 있어 학습을 즐겁게 만들어 주며, 서양 철학사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유를 맛볼 수 있어 이 또한 재미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교과목은 교양 중에서도

다른 과목들에 비해 배우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의대라는 특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제시하고, 수업 중간중간에 이를 느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유와 이성〉 중 동일성의 문제를 설명할 때, 장기 이식의 문제를 언급하며 갈아 끼운 장기를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장기를 갈아 끼운 후 ‘나’는 이전의 ‘나’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장기 이식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같이 생명 윤리적인 문제를 엮어서 설명하신다면 학생들이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배경지식에 따라 내용 파악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학우들은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경지식이 없다면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제 경우 그리스 신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무하여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걱정이 되었으나,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동영상과 수업을 듣고 줄거리와 인물 간의 관계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내용 이해에 시간이 오래 걸려 PPT의 단어들을 외우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빈칸 채우는 문제에서 만족할 만큼 채우지 못해서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시험 문제를 중심 개념만으로 풀리도록 하거나 모든 문제를 단답형이 아닌 서술형으로 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나 채점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구성 면에서는 수정할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상적인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많이 고민하신 게 느껴지는 수업 구성이라 좋았습니다.

다음은 ppt에 관련한 평가입니다. 교수님의 ppt에는 농담이 많고 웃겨서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 중 나온 스파이더맨, 붓치 더 록 같은 재미있는 비유와 수업 썰(우연과 필연), 웹툰(Origin)같이 다양한 소스에서 수업과 연관짓는 것은 지루한 수업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썰을 좋아하는 것도 한 몫입니다. 그러나 ppt의 내용 면에 관련해서는, ppt가 직관적

이지 않다는 평가와 ppt만 보고 공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 보완되는 성질이기는 하나, 수업 이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ppt를 펼쳐볼 때 어디가 중요하고 어떤 단락이 교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알아보기 어려웠고, 시험문제를 풀때도 ppt에는 추상적으로 적힌 부분에 대해 자세한 답을 요구하여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외부자료 발췌 시, 글씨의 가독성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 다. 정렬이 깔끔하지 않거나, 줄 간격이 너무 좁거나, 글자 색이 배경과 혼재되어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줄 간격을 조금 넓히고 배경 색과 겹칠 때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거나 텍스트 윤곽선을 추가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수님에 대한 평가는 ‘인상이 좋다’, ‘사려가 깊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과 자기비판, 자기성찰을 하시는 언행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너무 자신을 낮추면 몇몇 학생들이 얹잡아보진 않을까 걱정되어, 필요할 때는 엄하게 학생들을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평가는 목소리가 졸리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시험에 대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시험지의 지문에서 각 문장이 너무 길어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알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만연체로 작성한다면 작성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지문도 만연체로 작성한다면 읽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험을 보았을 때도 지문의 각 문장의 길이가 길어 문장 뒷부분을 생략하거나, 읽다가 흐름이 끊긴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전략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라면 문장 하나하나의 길이를 줄여 의도를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석 교수님의 ‘의미와 감성’과 ‘사유와 이성’ 수업은 저에게 신화와 철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 안에서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제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요. 앞으로도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학업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 this day the most unrealistic thing Disney ever did was portray Zeus as a loving family man.

AI시대, 우연희(優演喜) 포럼을 통해 사고의 틈을 넓히자

‘잉여인간’이란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소유의 종말』, 『노동의 종말』 등의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파헤친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러프킨(Jeremy Rifkin)이 제시한 말이죠. 그가 말하는 인류 역사는 0.1%의 창의적인 인간과 그를 알아보는 0.9%의 통찰력 있는 인간, 즉 1%의 사람들이 이끌어 왔고 나머지99%는 잉여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80:20이라는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을 접했을 때는 ‘그래 나는 최소한 20% 안에는 들어가는 사람일 거야’라며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 99%라면 빠져나갈 수 없이 잉여 인간이 되어야 했으니깐요.

그런데, 20% 또는 1%는 누가 정한 것일까요? 또 1% 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결과는무엇일까요? 부와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풍요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결과 말고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최고로 행복할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UN에서 발간한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순위는 UN에 가입한 137개국 중에서 57위,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에서 35위, 자살률은 2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행복’이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전혀 다른 행복지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AI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최근 정보화의 속도는 견잡을 수 없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30년 전인 1990년대 초부터 상용화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땔래야 땔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스마트폰도 불과 18년 전에 등장했죠. 그런데 다시 2022년 말에 생성형AI라는 인공지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불과 30년도 안된 짧은 시간에 견잡을 수 없이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습니다.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잉여 인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이런 변화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고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으로, 나 자신으로 주체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의 속도에 기준을 맞추지 말고, 다른 기준을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분석적, 이성적, 과학적,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참과 거짓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체계를 바꾸고 비효율을 줄인다는 명분 하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AI라는 신생물을 만들었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융합할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모순적 논리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고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양성하

는 대학입니다. 의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람이죠. 사람 중에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환자가 가진 질환을 정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질환이 발생하게 된 원리와 기저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찾아내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전인적인 인간, 실존의 주체로서 온전한 인간은 충분히 관심받고 존중되고 있나요? 질환 극복과 과학적인 논리 속에서 총체적인 주체로서의 인간은 소외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지속적인 의·과학 발전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전인적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너무 빠른 발전 속도 대신 ‘머무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안정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1%의 비중 밖에 안되더라도 그것마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의 회오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참과 거짓 구분을 통한 한가지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 그것이 인문학의 힘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조그만 틈 1%를 위한 시도가 있습니다. 성의교정 인문사회의학연구소에서는 작년 (2023년) 늦은 하반기부터 ‘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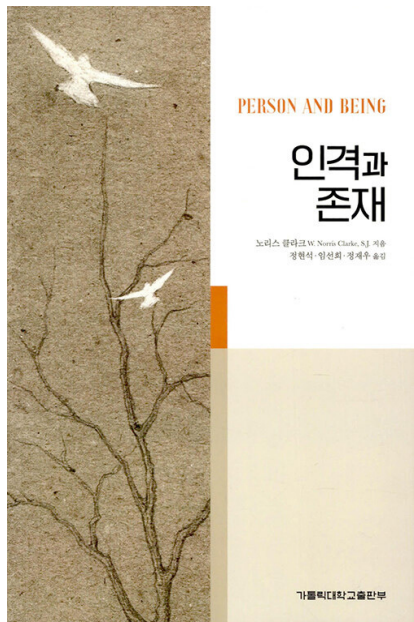
교양 작은 도서관’을 열고 작은 올림을 시작합니다. 우연희(優演喜) 포럼은 ‘우아한 강연에서 기쁨을’이라는 모토로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기준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책이나 난해한 문제를 다루기보다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감성적인 사고를 해볼 기회를 일 년에 두 번 정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매달 추천 도서 소개와 ‘인문교양 도서 읽기 소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문의 : 02)3147-8484
장소 : 인문사회작은도서관(성의회관 3층)



박병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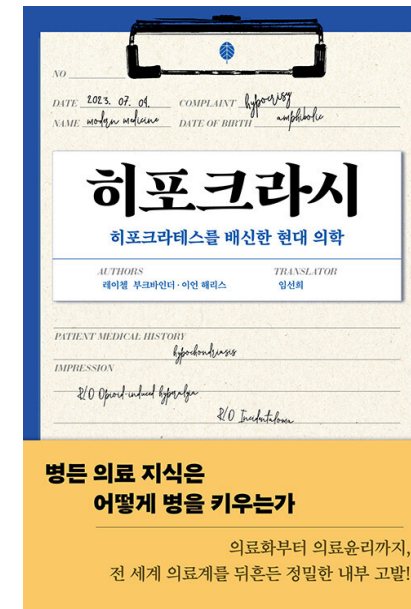


제 목 인격과 존재
저 자 노리스 클라크
출 판 사 가톨릭대학교출판부
출 판 일 자 2023년 11월 20일
가 격 14,000원

『인격과 존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격 이해를 W. 노리스 클라크가 이른바 “창조적 회복과 완성”의 형식으로 현대의 여러 철학적·인간학적 도전에 답하며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 “창조적 회복과 완성”의 작업으로서 본 작품은 완결된 결정적 해답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는다. 노리스 클라크는 인격을 향한 우리의 철학적 작업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 어떤 개별자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 말한다. 그런 까닭에 그는 ‘존재’라는 가장 근본적이며, 동시에 역동으로 가득한 활동을 통해 살아 있는 ‘나’ 혹은 ‘당신’에게 주목하라고 주문한다.

이를 통해 클라크는 인격을 향한 우리의 철학적 작업이 궁극적으로 ‘나 혹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와 당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배려로 결실을 맺는 철학적 사유의 여정이 될 것임을 보여주려 한다.



제 목 의료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저 자 레이첼 부크바인더, 이언 해리스
출 판 사 출판사: 책세상
출 판 일 자 출판일자: 2023년 7월 4일
가 격 가격: 22,000원

의학은 과학이다. 그렇다면 현대 의학은 당연히 현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두 저자 레이첼 부크바인더와 이언 해리스는 이 책을 통해 이른바 ‘증거 기반 의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현대 의학의 여러 문제점을 철저하게 고발한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철저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근거로 삼는 ‘증거 기반 의학’을 토대로, 최신 연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행에 따르는 의료계의 비과학성을 예리하게 비판한다. 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의학적 오해와 과거의 시행착오부터 최신 연구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료의 역사를 아우른다.

무엇보다도 두 저자는 이 책의 제목처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변화를 촉구하며 의사와 환자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린다. 그들이 그리는 청사진은 기존 현대 의료 비판서가 제시하는 그것과는 다르다. 이 책에서는 과도한 영리 추구로 타락한 의료 ‘시스템’에 초점을 둔 여타 비판서와 달리, 과학적 증거가 미비하거나 빈약한 의료 행위를 비판 없이 행하는 의사와 이를 조장하는 현실을 함께 겨냥한다. 이로써 기존 비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들의 시선을 의료 피해 현장으로 끌어들인다. 이 책을 접하며 독자들은 의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의 장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두 저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의료인에게 이 책은 위선(hypocrisy)을 물리치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당위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다.

옴니버스 교수개발특강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는 인문사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023년 4월 22일(토요일)에는 류승연 작가님을 모셔 「장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삶의 일상성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활치료」라는 주제로, 동년 5월 20일(토요일)과 6월 17일(토요일)에는 각각 조기훈 작가님과 조한진희 작가님을 모셔 「영케어러의 경험과 돌봄의 문제」와 「의존의 정상성과 보편성- 아프고 취약한 몸들의 돌봄」이라는 주제로 **옴니버스 교수개발특강**을 진행했다. 그리고 12월 15일(토요일) 교수개발 특강은 「수용과 고요: 자기배려와 회복력을 위한 옛 덕목의 새로운 조명」이라는 주제로 최대환 신부님을 모셔 진행하였다.

옴니버스 정기 심포지엄

2023년 10월 19일(목요일)에는 옴니버스 파크 1층 대강의실2에서 <의료와 돌봄: 돌봄위기시대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옴니버스 정기 심포지엄**에서는 김창엽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기조강연 「‘나라만들기’ 시기 이후, 한 국의료와 돌봄의 위기」를 시작으로, 홍경자 교수(서강대 신학대학원)와 유기훈 선생(서울대학교 인문외교학과/서울대병원), 그리고 김평만 신부(가톨릭대 인문사회연구소)가 각각 철학, 의학, 신학의 전망에서 「자기돌봄과 철학상담」, 「정신장애의 다양성과 돌봄의 문제」, 「소명으로서 돌봄-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진행하였다.

옴니버스 공동 심포지엄

2023년 11월 23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와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이 공동주관하여 <CMC 정신건강의학과와 자살예방사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역사 심포지엄**에서는 박승만 교수(가톨릭대 인문사회연구소)가 「본능에 따른 죽음, 예방 가능한 죽음: 1960년대 한국과 자살을 향한 새로운 시선의 교차」라는 주제로, 이경욱 교수(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CMC 자살예방의 역사」라는 주제로, 서울 성모병원 영성부의 차바우나 신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자살예방 역사」라는 주제로, 그리고 사회사업가 김세원 선생은 「CMC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현황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를 진행했다.